

광주 군 공항 이전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광주·전남 최대 현안 ... '광주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어
부족한 예산 국가 지원, 이전부지·종전부지 개발 재정지원 가능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특별법)' 제정이 큰 고비를 넘어섰다. 이번이 없는 한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하면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특별법'에는 '기부 대안'이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특히 이전부지(새로운 군 공항 건설 부지) 및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와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종전부지(현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광주시와 이전 지역 모두에게 큰 도움을 주는 특별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광주시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이 종전부지에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광주시 주도의 개발 자율성도 한층 넓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시는 '광주특별법'이 6일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대구특별법(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다음 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11-12일)를 거쳐 국회 본회의(13일)에서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대구시 등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특별법이 완성되면 국무조정실장이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며, 기재부·국토부·국방부·행안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각 부처의 지원을 이끌어 낸다.

특별법이 제정 일정에 맞춰 더디게 진행되던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 공항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유치의향서를 국방부에 내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부지 선정 등을 절차를 밟게 된다. 국방부는 첫 단계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 앞서 그동안 이전 부지로 거론됐던 자치단체에도 유치의향을 묻는 공문을 보내 최종 유치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지금까지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로 거론되는 지역은 함평, 무안, 영광, 해남, 고흥 등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총사업비는 5조 7480억원, 이 중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는 4508억원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지만 이전 지역이나 여건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특히 군 공항 이전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기부 대안 방식의 한계 때문에 실행 단계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민선 8기 광주시는 국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노력해 광주 특별법과 대구 특별법 제정에 대구시와 협력하기로 하고 국회의 협조도 얻어내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다만 법안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몇 걸음이 더 남았다"면서 "광주특별법과 대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역 정치권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국내외 문화관련 기자들을 위한 사전 공개 행사가 5일 오후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진행됐다. 이숙경 총감독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작품 설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계 미술축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세계적인 미술축제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94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16면> 5일 내외신기자 프레스 오픈을 시작으로 7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를 주제로 전 세계 79명(팀)의 작가가 작품을 선보인다.

올해 비엔날레는 용봉동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예술공간 집 등에서 열린다. 또 프랑스, 캐나다 등 9개 국이 참여하는 파블리온 프로젝트도 양림미술관 등 곳곳에서 진행돼 광주 전역이 역동하는 현대미술의 현장으로 변신한다.

5일 열린 프레스 오픈에는 코로나19 이후 열리는 대규모 미술 축제는 처음인데도 국내외 기자들이 몰려 상황을 이뤘다. 이날 직접 전시 해설에 나선 이숙경 총감독은 "다양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예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탐색해본 전시"라며 "광주라는 구체적인 장소성에 주목한 점도 이번 행사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개막식은 6일 오후 6시 전시관 앞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의 개막선

언에 이어 광주시장 환영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축하 순으로 진행되며 슈퍼유니버 멤버이자 배우인 최시원 홍보대사 위촉식, 이숙경 예술감독 전시 설명 등이 이어진다.

또 프랑스 모리스 테이트 모던 관장, 아드리아노 페드로사 2024 베니스비엔날레 예술감독 등 미술계 인사들과 함께 캐나다 대사 등 파블리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각국의 인사들도 참여한다.

특히 이번 개막식에서는 올해 처음 제정된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첫 수상자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외 5명의 심사위원이 전시 작품 중 한 작품을 선정해 상금 10만달러(한화 1억3000만원)를 수여한다.

강기정 광주 시장의 초청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건희 여사 개막식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양우 대표이사는 이날 "개막식이 아니더라도 전시 기간 중 김건희 여사가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7-8일에는 심포지엄과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열리며, 8일에는 비엔날레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국립합창단의 공연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에 '단비' 가뭄 해소엔 '미흡'

광주와 전남 전역에 지난 4일부터 '단비'가 내리고 있지만 가뭄 해갈의 효과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오후 4시 기준 광주에서는 광산구의 강수량이 67.5mm로 가장 많았고, 북구 운암동이 46.1mm로 가장 적었다.

전남에서는 진도 124.5mm, 완도군 123.2mm, 광양 백운산 120mm 순으로 비가 많이 내렸고 화순 능주면이 22mm로 가장 적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6일 광주·전남 곳곳에 오전 9시까지 소량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소강상태를 보이다 오후 3시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엔 내린 비로 상수원의 물 유입량은 늘었지만 가뭄 해갈까지는 무리라는 분석이다.

지난 4일 하루동안(0시-24시) 동북태에 유입된 물의 양은 9만 4000t으로, 전남 4만 가량이 집계된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메마를 데로 메말라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수원지의 바닥을 채우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전남 양농농가 꿀벌 60% 사라져	▶6면
광주일보 제10기 1차 독자위원회의	▶11면
나성범 8주 못 된다...KIA, 또 부상 악몽	▶18면
내일 신문의 날 ... 신문 쉽니다	

물처럼 Soft and weak 부드럽고 like water 여리게

장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주최·주관
(재)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VENUES
Gwangju Biennale Exhibition Hall,
Gwangju National Museum, Mugaksa,
ArtSpace House, Horanggasy Artpolygon

HOSTS
Gwangju Biennale Foundation
Gwangju Metropolitan City

후원

광주신세계

개관 70주년 양현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 제 14 회 • 광주비엔날레 •
• 14 TH • GWANGJU • BIENNALE •
• 2023 • 4 • 7 7 • 9 •